



대학주보



공간 정책, 효율성 높이기도 병행해야 - 우리대학이 지속해온 공간 정책은 절대 면적 확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비대면 등 변화된 환경에서는 기존 공간의 효율성 높이기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사진 속 삼의원창업센터의 공용공간은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있어 향후 공간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관련기사 7면

재개되는 생협 운영 활기 찾나

강다운 기자 ekdms200202@khu.ac.kr

【서울】2학기 개강에 맞춰 생협이 운영을 재개한다. 생협은 ▲푸른솔 학생식당과 카페 ▲생활과학대학 매점 ▲케이터링 서비스 재개와 ▲미술대학 매점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협은 코로나19로 푸른솔 학생 식당과 카페 4개 소 등을 휴점하는 등 운영을 잠정 축소해왔다. (관련 기사: 계속되는 생협적자 대면수업 재개 관건/대학주보 제1684호 (2022.04.11.)) 캠퍼스가 점차 활기를 찾게 되면서 생협도 지난달 2일 석식 재개를 시작으로 운영 확대를 계획 중이다.

오는 9월부터 생협은 푸른솔 학생식당과 푸른솔 카페를 다시 운영한다. 푸른솔 학생식당은 중식과 석식, 청운관 학생식당은 조식, 중식, 석식을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각 학생식당에 코너가 5개씩 있는데, 현재는 청운관 학생식당에서만 코너를 하나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2학기 수업 방식이 결정된다면 대면 수업률에 따라 청운관 학생식당의 코너 운영 개수를 조정하고 푸른솔 학생식당의 운영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과학대학 매점 역시 운영을 재개하고, 추가로 미술대학 매점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 사무국장은 “미술대학은 학내 매점을 사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미술대학 내 매점을 추가로 운용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미술대학 매점을 신규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내 행사에서 도시락, 커피 등을 제공하는 학생식당의 케이터링 서비스도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4면으로 이어짐

GPA 백분위 환산식 상향조정안으로 개정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지난 2일,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와 교무처로 구성된 ‘GPA 백분위 환산식(환산식)’ 개정 TF 회의에서 환산식 개정안이 결정됐다. 결정된 환산식 개정안은 실무 단계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GPA 백분위는 학부 성적을 백분위로 변환한 점수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전문 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에 중요하게 사용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점이 4.3 만점에 4.2 이하일 때, ‘10×학점+56’이라는 식으로 ‘GPA 백분위 점수 (GPA 백분위)’를 환산하고 있다. 4.2 초과 구간에서는 4.25가 99, 4.3은 만점인 100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7/4.3 성적을 GPA 백분위로 환산하면 ‘10×3.7+56’ 계산 과정을 거쳐 93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 환산식에 의하면 학점 2점대 이상부터 평점 4.5를 만점으로 하는 서울권 주요 대학보다 낮은 GPA 백분위가 도출되는 상황이다. 평점 4.3을 만점으로 하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GPA 백분위가 도출되고 있다. 이는 대학

마다 GPA 백분위를 도출하는 고유한 환산법이 있고, 각각 환산법에 따라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은 ▲환산식 관련 양 캠퍼스(양캠) 학생 간담회 개최 ▲환산식 상향조정을 의제로 한 양캠 학사운영 TF 회의 개최 등 환산식 상향조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 결과 서울캠 총학은 교무처로부터 3가지의 환산식 상향조정안(조정안)을 수령하게 됐다.

조정안 I 과 조정안 II 의 경우, GPA 백분위는 모든 학점 구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1점씩 상승한다. 예컨대, 3.7/4.3 학점의 기존 백분위 점수는 93이지만, 상향조정안 I 과 II 를 적용하면 94점이 도출된다. 3.8/4.3 학점의 GPA 백분위 점수는 기존 94에서 95로 상승한다.

조정안 III 은 GPA 백분위의 상향방식이 비례적이지 않으며 GPA 백분위가 학점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상승한다. 예컨대, 3.7/4.3 학점의 GPA 백분위는 기존 93에서 94.8로 1.8점 상승한다. 3.8/4.3 학점의 GPA 백분위는 기존 94에서 95.7로 1.7점 상승한다. 상향의 폭이 구간별로 상이한 것이다. 또한,

| GPA 백분위 환산점수 개정안 | | |
|------------------|-------|--------|
| 학점 | 기존 점수 | 개정안 점수 |
| 4.2 | 98 | 99.2 |
| 4.1 | 97 | 98.4 |
| 4.0 | 96 | 97.7 |
| 3.9 | 95 | 96.6 |
| 3.8 | 94 | 95.7 |
| 3.7 | 93 | 94.8 |
| 3.6 | 92 | 93.4 |

기존 GPA 백분위 환산식 점수와 개정안 점수의 비교

조정안 III 은 2.5/4.3 학점 이상의 구간부터 조정안 I 과 조정안 II 보다 높은 GPA 백분위를 도출한다.

서울캠 총학은 ‘구간별 차등 환산식’인 조정안 III 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조정안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GPA 백분위를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C+(2.3/4.3) 이상 학점 보유자의 상향 폭이 더 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은 “상향의 폭이 작은 구간, 혹은 조정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구간 또한 ‘상향의 정도’가 적은 것일 뿐 해당 안을 적용할 경우 환산점수는 거의 모든 학점에서(평균 0.5 이하의 경우 소폭 하향)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된다”라며 해당 조정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해

당 조정안이 적용될 경우, 평점 4.3을 만점으로 채택하는 학교 중에서는 서강대와 함께 가장 높은 GPA 백분위를 도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은 “GPA 환산식 개정안이 결정되기까지 오래 걸렸다. 6개월간 교무처와 총학이 이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어떤 개정안이 좋을지 고민했다. 현재 학우들의 학점 관련 경쟁력이 타 학교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환산식 개선에서 멈추지 않고, 학점표준화 제도 등과 같은 불리한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호가 1학기 중간호입니다.